

과 주

I. 기록이 전하는 유적

1. 감악사(紺岳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積城 佛宇 紺岳寺]

○ 在紺岳山 ○ 高麗黃彬然未第時讀書于此東閣金華尹醉發狂言忤權貴徒步出城歸紺岳自云老兵寄宿彬然憫其老且困許之終日在牀下無一言偶取火筋畫灰成字勢座皆指目這老漢頗鮮文字也詔朝莘尹子蘊琦已登第省往尋拜庭下彬然伏地愧謝莘尹笑曰措大安知范睢之已相秦也相與登北峯坐松下石共飲極歡賦松風聯句彬然曰斷送玄猿嘯掀揚白鶴伸東閣云鶴寒難得睡僧定獨如聲彬然扣頭願受業留數月讀前漢書畢乃還

○ 감악산에 있다. ○ 고려 황빈연(黃彬然)이 과거하기 전에 여기에서 글을 읽었다. 동각(東閣) 김신윤(金莘尹)이 술에 취해서 미친 말을 하다가, 권신에게 미움을 받고 도보로 감악에 들어와서 스스로 늙은 병졸이라 하며 기숙하기를 청하였다. 빈연은 그가 늙었고 또 곤궁함을 민망하게 여겨서 허락하였다. 종일토록 형상 아래에 있으면서 말 한 마디 없다가, 우연히 부젓가락을 잡고 재를 모아서 글자 모양을 만들었다. 좌중에서 모두 “저 늙은이가 문자를 제법 안다”고 지목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신윤의 아들 온기가 이미 과거에 올라 아버지를 찾아와 뜰 아래에서 절하니, 빈연이 땅에 엎드려서 사과하였다. 신윤은 웃으면서 “범저苑睢)가 이미 진(秦)나라 정승이 된 줄을 궁한 늙은이가 어찌 알리요”하고 서로 더불어 북쪽 봉우리에 올라 소나무 밑 돌에 앉아서 함께 술 마시며 한껏 즐거워하였다. 송풍(松風)을 제목으로하여 연귀(聯句)를 지었는데 빈연은 “원승이 휘파람 소리 끊어졌다 다시 들리고 학의 충천하는 기운 드날린다”하였고, 동각은 “날 추우니 학이 잠들기 어렵고 중이 선정에 드니, 귀머거리 같다” 하였다. 빈연이 머리 두드리며 수업하기를 원하였다. 두어달 머물러서 『전한서(前漢書)』를 다 읽고 돌아왔다.

[伽藍考 積城 紺岳寺]

○ 在紺岳山縣東二十五里

○ 감악산에 있다. 현 동쪽 25리에 있다.

[梵宇攷 積城 寺刹 紺岳寺]

○ 在紺岳山今廢, 이하 新增東國輿地勝覽과 동일.

○ 감악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 유적·유물

- 감악사지 /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 사지 / 신라때 창건되었다고 전함. 이후 1799년 이전에 폐사되었고 이후 1858(철종 9)년에 복원. 한국전쟁 때 소실.

2. 검단사(黔丹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交河 佛宇 黔丹寺]

- 在黔丹山
- 검단산에 있다.

[輿地圖書 交河 寺刹 黔丹寺]

- 在黔丹山
- 검단산에 있다.

[太古寺法 黔丹寺]

- 在坡州郡炭縣面鰲頭山大本山傳燈寺末寺
- 파주군 탄현면 오두산에 있다. 대본산 전등사의 말사이다.

[傳燈本末寺誌 黔丹寺]¹⁾

- 新羅文聖王九年丁卯黔丹禪師(卽眞鑑國師慧昭以其貌黑故或稱黑頭陀或稱黔丹)命侍者開山以別號爲寺名至朝鮮英祖七年辛亥自坡州郡臨津面雲泉里遷奉仁祖大王及仁烈王后韓氏之陵于葛峴里之時移建此寺于鰲頭山腹云明治十一年丙午住持金正昊修繕法堂
- 신라 문성왕 9년(847) 정묘 검단선사(즉 진감국사 혜소, 얼굴이 검은 연고로 혹은 흑두타 혹은 검단이라고도 칭함)가 시자에게 명하여 창건했는데 이로써 이 절의 이름을 삼았다. 조선 영조 7년(1731) 신해 인조대왕 및 인열왕후 한씨의릉을 파주군 임진면 운천리로부터 갈현리로 옮겨 봉안하였다. 이 때 이 절을 오두산으로 옮겼다. 명치 11년(1907) 병오 주지 김정호가 법당을 수리했다.

■ 유적·유물

- 검단사 /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405 / 사지 / 본래의 사지로 생각되는 대지의 중심 부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고 대지 오른쪽에 치우쳐 현사찰이 건립. 아미타후불탱화(19세기 말), 신중탱(19세기 말) 등 소장

1) 『韓國寺刹全書』에서 전제하였다.

3. 고령사(高嶺寺)

[太宗實錄 卷18 9年(1409) 7月 3日(癸酉)]

○ 大風雷雨電暴作道峯山崩楊洲山頽尤甚議政府白遣書雲監候金種善行視之碧蹄高嶺之間山頽二百七十處高嶺寺下里一家二十二人皆壓死京畿道觀察使啓云本月初三日水災山頽楊州抱川豐壤等處人死者五十五牛五頭馬五匹上泣曰古有帝王側身修行者未知何者爲修行之事乎開城留後司漂流民家九戶江原道朝宗縣山頽壓死男婦二十名馬七匹牛三頭

○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우뢰와 번개가 몹시 심하여, 도봉산이 무너졌다. 양주에서 산이 무너진 것이 더욱 심하였다.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고 서운 감후(書雲監候) 김중선을 보내어 시찰하게 하니, 벽제와 고령 사이에 산이 무너진 곳이 2백 70곳이나 되었는데, 고령사(高嶺寺) 아랫 마을에서 한 가족 22인이 모두 압사하였다. 경기도(京畿道) 관찰사(觀察使)가 아뢰기를, “이달 초3일 수재(水災)에 산이 무너져, 양주·포천·풍양 등에서 사람이 죽은 자가 55명이나 되고, 소가 죽은 것이 5두(頭), 말이 죽은 것이 5필(匹)입니다” 하였다.

[明宗實錄 卷2 卽位年(1544) 10月 5日(甲午)]

○ ……卽拿致璫于庭中問汝身犯大罪勢不得免何故在逃乎璫曰……臣自少推命壽限不長宜入山林然常時宗親不可無緣出家適家門尊長喪敗因此而出別無他情二十三日往楊州高嶺寺欲見僧奴敬元則敬元乃在傍寺金剛庵卽使人招敬元仍率歸楊州長水院村舍留二日而後城外南山麓還到楊花渡江亭

○ ……이유를 꺾정으로 잡아들여 묻기를, “네가 큰 죄를 지어서 사세가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도망쳤는가”하니, 이유가 답하기를 “……신이 소시적에 운명을 점쳐보았는데, 수명이 길지 않으므로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종친으로서 까닭없이 출가(出家)할 수가 없었고 마침 집안의 존장(尊長)이 죽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출가하였을 뿐,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23일에는 양주(楊州) 고령사(高嶺寺)에 가서 승노(僧奴) 경원(敬元)을 만나보려 하였는데, 경원이 그때 그 옆 금강암(金剛庵)에 가 있었으므로 즉시 사람을 시켜 경원을 불러 왔습니다. 그길로 양주 장수원(長水院) 시골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이틀동안 머물다가 성 밖 남산(南山) 기슭을 따라 양화도(楊花渡) 강정(江亭)으로 돌아왔습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楊州 佛宇 高嶺寺]

○ 在高嶺山

○ 고령산에 있다.

4. 고혜음사(古惠陰寺)²⁾

[東文選 卷64 記 惠陰寺新創記]

- 峯城縣南二十許里有一小寺弛廢已久而鄉人猶稱其地爲石寺洞自東南百郡趣京都與夫自上流而下者無不取道於此故人磨肩馬接跡憧憧然未嘗絕而山丘幽遠草木蒙翳虎狼類聚自以爲安室利處潛伏而傍睨時出而爲害非止此而已間或有寇賊歛攘之徒使其地荒而易隱人畏而易劫爰來爰處以濟其姦干二邊行者躊躇莫之敢前相戒以盛徒侶挾兵刃而後過焉而猶或不免以死焉者歲數百人先王睿王在有十五年己亥秋八月近臣少千奉使南地廻上問若此行也有所聞民之疾苦乎則以是聞之上惻然哀之曰如之何可以除害而安人奏曰殿下幸聽臣臣有一計不費國財不勞民力但募浮圖人新其廢寺以集清衆又爲之屋廬於其側以著閒民則禽獸盜賊之害自遠行路之難平矣上曰可汝其圖之於是公事抵妙香山寺告於衆中曰某所有巨害上不忍動民以土木營造之事先師見遘難者必施無畏疇克從我有事於彼乎寺主比丘惠觀隨喜之其徒欲從者一百人惠觀老不能行擇勤恪有技能者證如等十六人資送之以冬十一月到其所作草舍以次之上命比丘應濟主典其事弟子敏清副之利器械鳩材瓦經始於庚子春二月至壬寅春二月工既告畢齋祠息宿以至廚庫咸各有所又謂若乘輿南巡則不可知其不一幸而駐蹕於此宜其有以待之遂營別院一區此亦嘉麗可觀至今上卽位賜額爲惠陰寺噫變深榛爲精舍化畏途爲平路其於利也不其博哉又侍以米穀舉之取利設粥以施行人至今幾於息焉少千意欲繼之於無窮精誠有感檀施荐來上聞之惠捨頗厚王妃任氏亦聞而悅之曰凡其施事我其尸之增其委積之將盡者補其什物之就缺者然後事無不備者矣或曰孟子言堯之時洪水橫流使禹治之鳥獸之害人者消然後人得平土而居之使益烈山澤而焚之鳥獸逃匿周公相武王驅虎豹犀象而遠之天下大悅其或春秋時鄭國多盜取人於萑符之澤子大叔除之漢時渤海民飢弄兵於漠池之中翼遂安之其他以盜賊課寄名於史傳者無代無之則逐虎豹除盜賊亦公卿大夫之任也而少千下官也應濟敏清開士也非所謂官治其職人憂其事乃無所陵者也其可記之以話於後乎又釋氏之施貴於無住相莊周亦云施於人而不忘非天布也則區區小惠亦宜若不足書答曰不然唐貞元季年夏大水人物蔽流而東若木梯然有僧愀焉援溺救沉致之生地者數十百劉夢得志之宋熙寧中陳述古知杭州問民之所病皆曰六井不治民不給於水乃命僧仲文子珪辦其事蘇子瞻記之君子樂道人之善如此豈可以廢乎而又人之爲善自忘可也不有傳者何以勸善其經論所言不可縷敘至若唐僧代病作施食道場前後八會通慧師載之僧傳至於儒書亦有之如禮記云衛公叔文子爲粥與國之餓者不亦惠乎則此又不可不書者也少千姓李氏父晟善屬文登科爲左拾遺知制誥卒少千仕至七品官公事餘間事佛尤謹今則麻衣蔬食自號爲居士勤苦其行爲上所知故有所立如此應濟住持曰淺敏清繼之訖用有成可謂能矣其所資用皆信出於上所賜及諸施其名目具如陰記云爾時甲子春二月日記
- 金富軾

2) 惠陰寺라고도 한다.

○ 봉성현(峰城縣)에서 남쪽으로 20리쯤 되는 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허물어진지 벌써 오래였으나 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을 석사동(石寺洞)이라 불렀다. 동남방에 있는 모든 고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모두들 이 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깨가 서로 스치고, 말은 굵이 서로 닿아서 항상 복잡하고 인적이 끊어질 사이가 없었는데, 산 언덕이 깊숙하고 멀며, 초목이 무성하게 얹혀 있어서 호랑이가 때로 물려다니며, 안심하고 숨어 있을 곳으로 생각하여, 몰래 숨어서 옆으로 엿보고 있다가 때때로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 이 뿐 아니라 간혹 불한당들이, 이 지역이 으스스하고 잠복하기가 쉬우며 다니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와서 은신하면서 그들의 흥행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올라오는 사람이나 내려가는 사람이 주저하고 감히 전진하지 못하며, 반드시 서로 경계하여 많은 동행자가 생기고 무기를 휴대하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데도, 오히려 살해를 당하는 자가 1년이면 수백 명에 달하게 되었다.

선왕인 예종(睿宗)이 왕위에 오르신지 15년인 기해년(1119) 가을 8월에 측근의 신하인 소천(少千)이 임금의 사명을 받들고 남쪽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다. 임금께서 “이번 길에 민간의 고통스런 상황을 들은 것이 있느냐”물으시니, 곧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임금께서는 측은히 이를 딱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폐해를 제거하고 사람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느냐” 하셨다. 아뢰기를, “전하께옵서 다행히 신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신이 한가지 계교가 있사온데, 국가의 재정도 축나지 아니하며 민간의 노력도 동원시키지 않고, 다만 중들을 모집하여 그 허물어진 집을 새로 건축하고 양민을 모아들여 그 옆에 가옥을 짓고 노는 백성들을 정착시키면, 짐승이나 도둑의 해가 없어질 것이며, 통행자의 난관이 해소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는, “좋다. 네가 그것을 마련해 보라” 하셨다. 이리하여 그는 공무를 띠고 묘향산(妙香山)에 가서 대중 가운데서 이르기를, “아무 곳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나라에서는 차마 토목공사를 가지고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다. 옛날 스님들은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는 회생심을 발휘하였는데, 여기서는 누가 나를 따라 저곳에 가서 일을 해보겠는가”하였더니 절의 주지 혜관(惠觀) 스님이 기꺼이 그를 따랐으며, 그 무리 중에 따라 가려는 사람이 백명이나 되었다. 혜관 스님은 늙어서 가지 못하고 부지런하며 진실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증여(證如) 등 16명을 선발하여 경비를 마련하여 보냈다. 연장을 버리고 목재와 기와를 모아들여 경자년(1120) 봄 2월에 착공하여 임인년(1122) 봄 2월이 되어서는 일을 모두 마쳤다. 절이 불당과 유숙하는 건물부터 주방, 창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소가 마련되었고, 또 생각하기를 “임금께서 남쪽으로 순수하신다면 행여 한 번이라도 이곳에 머무르실 일이 없지 않으리니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하여 드디어 따로 별원(別院) 한 개소를 지었는데, 이곳도 아름답고 화려하여 불만하게 되었다. 지금 임금께서 즉위하시어 절 이름을 혜음사(惠陰寺)라고 내리셨다.

아! 깊은 숲속이 깨끗한 집으로 변하였고, 무섭던 길이 평탄한 대로가 되었으니, 그 이

익이 또한 넓지 아니한가. 또한 양곡을 축적하여 놓고 그 이식을 받아서 죽을 쑤어서 여행자에게 공급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소천(少千)은 이것을 영원히 계속하려 하였더니 정성에 감동된 바 있어 회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겼다. 임금께서 이를 들으시고 은혜로운 회사를 상당히 후히 하시고 왕비(王妃) 임씨(任氏)도 듣고 기뻐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실시하는 모든 일은 내가 담당하리라”하시고 다 없어져가는 식량을 보태주시며 파손되어 못쓰게 된 기구를 보충하여 주셨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다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맹자(孟子)의 말에 요(堯)시대에 홍수가 범람했는데 우(禹)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도록 하여 사람을 해치는 새와 짐승이 없어진 뒤에 사람이 평지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익(益)으로 하여금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니 새와 짐승이 달아나서 숨어버렸다. 주공(周公)은 무왕(武王)을 보좌하여 범·표범·물소·코끼리 등을 몰아내어 멀리 보내버리니 천하가 모두 기뻐하였다. 또한 춘추 시대의 정(鄭)나라에 도둑이 많아서 풀숲이 우거진 못에서 나와 사람을 해쳤는데 대숙(大叔)이 이를 없애버렸고, 한(漢)시대에 발해(渤海)의 서방에 흉년이 들어서 못 가운데서 무기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해치는 것을 공수(龔遂)가 이를 평정하였다. 그 밖에 도둑을 처치한 것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없는 시대가 없었다. 그런 즉 짐승을 몰아내며 도둑을 제거하는 것도 공경(公卿)과 대부의 임무다. 그런데 소천(少千)은 하급 관리며 응제(應濟)와 민청(敏淸)은 승려인 즉 이것은 이른 바, ‘관리가 그 직책을 소홀히 할 때는 일반 인사가 그 일을 걱정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하필 그것을 기록하여 후일에 전하려 하는가. 또 불교에서는 보시하는 것을 무주상(無住相)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장주(莊周)도 이르기를, ‘남에게 선심을 쓰고 잊지 않는 것은 자연스런 회가 아니라’하였으니, 얼마되지 않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록해 둘 필요가 없을듯하다”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당(唐)시대의 정원(貞元) 말년 여름에 크게 홍수가 나서 사람과 물건이 휩쓸려서 동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모두 나무조각 같이 보였다. 어떤 중이 이를 딱하게 여기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잠긴 사람을 구제하여 살려낸 자가 수십 백 명에 달하였는데 유몽득(劉夢得)이 이를 기록하였고, 송(宋)시대 희녕(熙寧) 연간에 진술고(陳述古)가 항주(杭州)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민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우물 6개가 모두 수리가 안되어 식수를 먹을 수가 없다’ 하였다. 마침내 중인 중문(仲文)과 자규(子珪)에게 명하여 그 일을 처리하였는데 소자첨(蘇子瞻)이 이를 기록하였다. 군자가 사람의 잘한 일에 대하여 칭도하기를 이렇게 즐겨하였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서 스스로 잊어 버리는 것은 좋지만 이를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엇으로 선한 일을 권장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경론(經論)에서 서술한 것을 일일이 모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나라 시대의 중 대병(代病)이 시식도량(施食道場)을 설치한 것이 전후하여 여덟 번이나 되었는데, 통혜(通慧)대사가 이를 승전(僧傳)에 실었으며, 유학의 서적에도 이런 것이 있다. 이를테면 『예기(禮

記)』에 이르기를, ‘위(衛)나라의 공숙문자(公叔文子)가 죽을 쭈어서 나라 안의 굶주린 사람에게 주었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했으니, 곧 이것은 또한 써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천(少千)은 성은 이씨(李氏)이다. 아버지인 성(晟)은 문장을 잘 지었고 과거에 합격하여 좌습유지제고(左拾遺知制誥)까지 되었다가 죽고 소천은 벼슬이 7품관에 이르렀다. 공무를 보고 남은 시간에는 부처님을 정성으로 섬겼다. 지금은 배옷을 입고 채소를 먹으며 스스로 칭호를 거사(居士)라 한다. 그의 실천이 철저하여 임금에게 알려져서 그는 이와 같은 업적을 세웠다. 응제(應濟)는 일을 맡았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민청(敏淸)이 이를 인계하여 끝까지 완성을 보았으니 유능하다 할 수 있다. 그가 경비에 사용한 것은 위에서 내리신 것과 여러 신도들의 회사에 의한 것이다. 그 이름과 목록을 갖추어 후면에 기록한 바와 같다” 때는 갑자년(1144) 봄 2월 일에 기(記)를 쓴다.

김부식(金富軾)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 古跡 古惠陰寺]

○ 惠陰寺在惠陰嶺 ○ 金富軾記峯城縣南二十里有一小寺弛廢已久而鄉人猶稱其地爲石寺洞自東南百郡趣京都與夫自上而流下者無不取道於此故人磨肩馬接跡憧憧然未賞絕而山岳幽遠草木蒙翳虎狼類聚自以爲安室利處潛伏而傍睨時出而爲害非止此而已間或有寇賊歛攘之徒使其地荒而易隱人畏而易刦爰來爰處以濟其姦二邊行者躊躇莫之敢前相戒以盛徒侶挾兵刃而後過焉而猶或不免以死焉者歲數百人王命李少千募浮圖百餘人到其所作草舍以次之命比丘應濟主典其事弟子敏淸副之利器械鳩材瓦經始於庚子春二月至壬寅春二月工既告畢齋祠息宿以至廚庫成各有所又謂乘輿南巡則不可知其不一幸而駐蹕於此宜其有以待之遂營別院一區此亦嘉麗可觀至今上卽位賜額爲古惠陰云

○ 해음령에 있다. ○ 김부식의 기문에 “봉성현(峯城縣) 남쪽 20리 지점에 작은 절 하나가 있었다. 황폐한 지가 벌써 오래이나, 고을 사람은 그 지역을 아직도 석사동(石寺洞)이라 한다. 동남쪽 여러 고을에서 서울로 오는 자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는 이 곳으로 길을 잡지 않은 이 없다. 까닭에, 사람은 어깨가 맞부딪치고 말 발자취가 잇달아서 일찍이 풀일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산이 깊고 초목이 무성하니, 벌이 제대로 몰려들어 편한 집, 편리한 곳으로 알고 가만히 숨어서 엿보다가, 시시로 나와서 사람을 해친다. 이것 뿐만 아니고, 간혹 도둑과 잔지패가 그 지역이 깊어서 숨기 쉽고, 사람이 두려워해서 겁탈하기 쉬운 것을 편리하게 여겨서, 여기에 와서 살며, 간악한 짓을 이룬다. 그러므로, 양쪽 길을 가는 자는 주저하여 감히 앞서지 못하고, 서로 경계하여 많은 무리로 짝짓고, 병기를 가진 다음이라야 지나간다. 그렇게 하여도 오히려 화를 못 면하고 죽는 자가 해마다 수백 명이였다. 임금이 이소천(李少千)에게 명하여 중 백여 명을 모집하여, 그곳에 가서 초막을 지어 머물게 하였다. 또 비구 응제(應濟)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도록 하고, 재자 민청(敏淸)을 부책임으로 하였다. 기계를 편리하게 하고 재목과 기와를 모아서, 경자년 봄 2월에 시작하여, 임인년 봄 2월에 공사를 마쳤는데, 재사와 부엌·광까지 모두

구비되었다. 또 승여(乘輿)가 남쪽으로 가는 일이라도 있을 줄 모르거니와, 만약 한 번이라도 불쌍하게, 여기에 주필하게 된다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여, 드디어 별원(別院) 하나를 지었는데, 또한 경치가 아름다워 볼 만하였다. 지금 임금이 즉위하자, ‘혜음’이라고 액을 하사하였다” 한다.

[輿地圖書 坡州 寺刹 古惠陰寺]

○ 只有舊址

○ 만 옛터만 있다.

[傳燈本末寺誌 惠陰寺]³⁾

○ 在坡州郡惠陰嶺有高麗金富軾記

○ 파주군 혜음령에 있다. 고려 김부식이 쓴 기(記)가 있다.

5. 금강사(金剛寺)

[高麗史 卷129 列傳42 叛逆3 崔忠獻]

○ ……忠獻出廣化門向市街而下忠粹向廣化門而上遇於興國寺南交戰晋材躍珍碩崇各率徒衆一踰泥峴一踰沙峴一踰高達坂首尾相應腹背攻之忠獻以御庫大角弩縱射矢下如雨忠粹之徒取步廊扉板爲楯禦之不克遂大潰忠粹曰今日之敗天也兄居臨津以北我居臨津以南卽與淑庇存深等馳至保定門斬關而出渡長湍至坡平縣金剛寺追者斬之傳首于京忠獻哭之謂追者曰我欲生擒耳何遽殺耶乃遣人收葬之……

○ 최충헌은 광화문을 나와서 저자 거리를 향해서 내려오고, 최충수는 광화문을 향해서 올라 가다가 홍국사 남쪽에서 맞붙어 교전했는데 박진재·김약진·노석승은 각각 그 도당을 인솔하여 하나는 진고개[泥峴]를 넘고 하나는 모래재[沙峴]를 넘고 또 하나는 고달고개를 넘어서 서로 호응하면서 전후로 협공하였으며 최충헌은 어고(御庫)의 대각노(大角弩)를 가지고 마구 쏘아대니 화살이 비오듯 하였다. 그래서 최충수의 일당은 낭하 문짝을 뜯어서 방패삼아 막았으나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패주하니 최충수가 말하기를, “오늘의 패배는 천명이다. 형은 임진강 이북에서 살고 나는 임진강 이남에서 살겠다”하면서 즉시 오숙비·준존심 등과 함께 말을 달려 보정문으로 가서 수문(守門) 군사를 죽이고 성문을 나와 장단(長湍)나루를 건너 파평현(坡平縣) 금강사(金剛寺)에 도착했을 때 추격한 사람을 잡아죽이고 그의 수급을 서울로 전송(傳送)했다. 최충헌이 소리내어 울면서 추격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어찌 갑자기 죽였는가” 하고 사람

3) 『韓國寺刹全書』에서 전제하였다.

을 보내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었다…….

[高麗史節要 卷13 明宗 27年(1197) 10月]

○ ……忠粹曰今日之敗天也兄居臨津以北則我居臨津以南卽與淑庇存深等馳至保定門斬關而出渡長湍至坡平縣金剛寺追者斬之傳首于京忠獻哭之謂追者曰我欲生擒爾何遽殺乃遣人收葬之……

○ ……충수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패전(敗戰)은 천운(天運)이다. 형이 임진강(臨津江) 이북에 있으면 나는 임진강 이남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곧 숙비(淑庇)·존심(存深) 등과 보정문(保定門)으로 달려가 문 지키는 자를 베고 나와서 장단을 건너 파평현의 금강사(金剛寺)에 이르니, 추격한 자가 그를 베어 머리를 서울로 보내었다. 충헌이 울면서 추격하였던 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산 채로 잡으려고 하였는데, 네가 어찌하여 경솔히 죽였느냐”라고 하였다. 곧 사람을 보내 시체를 거둬 장사를 지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 佛宇 金剛寺]

○ 在彌羅山

○ 미라산에 있다.

[伽藍考 坡州 金剛寺]

○ 在彌羅山州北三十里

○ 미라산에 있다. 주 북쪽 30리에 있다.

[梵宇攷 坡州 寺刹 金剛寺]

○ 在彌羅山

○ 미라산에 있다.

[寺塔古蹟攷 金剛寺]

○ 古址在坡州郡坡州面金坡里

○ 옛터가 파주군 파주면 금과리에 있다.

[傳燈本末寺誌 金剛寺]⁴⁾

○ 高麗仁宗時政堂文學尹彥頤號金剛居士是其宅址法堂卽居士別堂施納者故仍以其號名寺云

○ 고려 인종때 정당문학 윤언이 혹은 금강거사가 이 절터에 법당 즉 거사의 별당을 회사하였다. 그러한 연고로 이 절의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4) 『韓國寺刹全書』에서 전제하였다.

6. 도봉사(道峰寺)

[高麗史節要 卷3 顯宗 元年(1010) 12月 辛未]

○ ……是夜王與后妃及吏部侍郎蔡忠順等禁軍五十餘人出京城癸酉至積城縣丹棗驛武卒堅英與驛人張弓矢將犯行宮蔡文馳射之賊徒奔潰復自西南山突出遮道蔡文又射却之晡時王至昌化縣有吏告曰王識吾名面乎王陽不聞吏怒將構亂使人呼曰河拱辰將兵來矣蔡文曰何故來耶吏曰欲擒蔡忠順金應仁耳應仁及侍郎李正忠郎將國近等皆遁夜賊又至侍從臣僚宦官嬪御皆亡匿唯玄德大明兩王后侍女二人承旨良叶忠弼等侍蔡文或出或入隨機應變賊不敢近及曉蔡文請二后先自北門脫去手輓御馬間行入道峰寺賊不之知忠順繼至蔡文奏曰去夜賊疑非拱辰臣請往跡之王恐其亡不許蔡文奏曰臣若背君言與事違天必誅之王乃許……

○ ……이 밤에 왕이 후비(后妃)와 이부시랑 채충순(蔡忠順) 등과 금군(禁軍) 5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나왔다. 적성현(積城縣) 단조역(丹棗驛)에 이르니 무졸(武卒) 견영(堅英)이 역인(驛人)과 함께 활시위를 당겨 행궁(行宮)을 범하려 하므로 채문(蔡文)이 말을 달려 이들을 쏘니 적의 무리가 도망하였다가 다시 서남쪽 산으로부터 갑자기 나와서 길을 막았다. 채문이 또 쏘아 이를 물리쳤다. 포시<晡時, 申時>에 왕이 창화현(昌化縣)에 이르니 아전이 아뢰기를, “왕께서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하였으나 왕이 일부러 듣지 못한 척 하였더니 아전이 노하여 장차 난리를 일으키려고 사람을 시켜 외치기를, “하공진(河拱辰)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였다. 채문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로 오느냐”하니, 아전은 “채충순(蔡忠順)과 김응인(金應仁)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자, 응인과 시랑 이정충(李正忠), 낭장(郎將) 국근(國近) 등이 모두 도망하였다. 밤에 적(賊)이 또 오니 시종하는 신하·환관·궁녀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고, 다만 현덕(玄德)·대명(大明)의 두 왕후와 시녀 두사람과 승지 양협(良叶)·충필(忠弼) 등만이 왕을 모시었다. 채문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때 그때의 시기(時機)에 따라 변고에 대처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새벽에 채문이 두 왕후에게 먼저 북문으로 몸을 빠져서 나가기를 청하고 손수 임금의 말을 몰고 사잇길로 가서 도봉사(道峰寺)로 들어가니 적이 이를 알지 못했으며 충순이 뒤따라 왔다. 채문이 아뢰기를, “지난 밤의 적은 공진(拱辰)이 아니듯 하오니 신이 가서 뒤를 밟아 보겠습니다” 하였다. 왕은 그가 도망할까 두려워하여 허락하지 않으니 채문이 아뢰기를, “신이 막약 주상(主上)을 배반하여 행동이 말[言]과 어긋난다면 하늘이 반드시 신을 죽일 것입니다”하니 왕이 그제야 허락하였다…….

7. 미타사(彌陀寺)

[輿地圖書 坡州 寺刹 彌陀寺]

- 在坡平山
- 파평산에 있다.

[奉先本末寺誌 彌陀寺 彌陀寺改金記]

○ 盖聞普渡黔靈釋氏之秉心大施窮乏君子之尚義是以過去現在開劫刹輪回之綱文正供佛撥金櫃塵襲之藏盖所以造福田之緣拯若海之溺者也心心傳印豈欺後世也哉惟我坡平山彌陀寺據一州形勝盡東南佳麗之觀釋子之依歸有所衆生之瞻仰探根而不幸年來星移物換僧徒散落所奉彌陀尊像金容脫落無所改金此豈獨僧徒之所憂亦爲名州文物之一大缺闕也於是山人頓欣袖藏勸文來請改其金相余告于僧曰善哉名也夫佛未嘗濟度之而衆生自得山川不見其運動而萬物咸殖若曹拜如來之堂誦無量之偈瞻彌陀之容祝施主之功日日夜夜年年歲歲不忘不懈則其於報施主之功亦爲佛氏度生之願也僧也頂拜曰敬受戒言遂列書改金功勳以揭諸壁

嘉慶十三年戊辰五月日

化主成坡頓欣監董成得儉

○ 듣건대 널리 창생을 구제하는 것은 석씨의 마음가짐이요, 궁핍한 이에게 크게 베푸는 것은 군자의 의(義)를 숭상함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겁찰(劫刹)이 윤회한다는 강령을 개도하였고 문정(文正)으로 공불(供佛)함에 먼저 낀 금궤의 저장을 열었다. 대체로 복전(福田)의 인연을 만드는 일은 고해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과 같은 일이다. 마음과 마음으로 심인(心印)을 전하는 것이니 어찌 후세(後世)를 속이겠는가? 우리 파평산(坡平山) 미타사는 한 고을의 형승지(形勝地)를 점거하여 동남의 아름다운 경관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승려들의 의귀(依歸)하는 바가 되고 중생들의 마음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래에 세상이 변하여 승도들은 유산(流散)하고 받들고 있는 미타존상은 금빛이 퇴색하고 벗겨졌으나 개금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 어찌 유독 승려들만의 걱정이겠는가? 역시 이름있는 고을의 문화적인 일대 결함인 것이다. 이에 산인(山人) 돈흔(頓欣)이 권문(權文)을 소매속에 넣고 나를 찾아 금상의 개도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스님에게 고하기를 “좋은 말이요. 대저 부처가 제도하지 않아도 중생은 살아가고 산천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물은 생성되고 번식해가고 있소이다. 그대들은 여래의 전당에 절하면서 무량(無量)의 계송을 외우며 미타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시주(施主)의 공을 빌어 날마다 밤마다 달마다 해마다 잊지도 않고 해이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시주의 공을 갚은 것이 되고 또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하니 스님이 고개 숙여 절하면서 이르기를 “면계(勉戒)하신 말씀 경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개금한 공로를 열기(列記)하여 벽에 붙이는 바이다.

가정 13년(1808) 무진 5월

화주(化主) 성파(成坡) 돈흔(頓欣), 감동(監董) 성득검(成得儉)

[奉先本末寺誌 彌陀寺 彌陀寺重建及改金記]

○ 坡平之彌陀寺揭號以極樂殿內坐阿彌陀佛觀世音菩薩兩尊金相又殿後作一間法堂內坐阿彌陀坡平之彌陀寺揭號以極樂殿內坐阿彌陀佛觀世音菩薩兩尊金相又殿後作一間法堂內坐阿彌陀佛觀世音菩薩大勢至菩薩三尊金相及散聖羅漢七位粉像者是甚摩殿內堂中各各號佛菩薩宜應可也都是一彌陀一觀音重疊奉安者又是甚摩更問主人公經云惟心淨土自性彌陀染淨十法界都是一心中所現又云同名同號阿彌陀佛依此表法而如是然歟不然則更是個甚麼道理主人公對曰此一間堂內坐三尊金像者此洞下十里許金剛古寺之主佛也麗朝尹相公之本寺矣世降聖遠崇佛者少毀佛者多自然山無光而寺自敗佛香絕而僧自散所餘佛像無依托而屬此寺則勢固然矣豈不慨然余日諾噫殿有頽像有渝居是寺奉是佛諸沙門得以重葺得以改塗今古非一二數而又幸哉今上卽位之十四年戊申孟夏京中檀越甲子生李氏欲報難忘之恩兼資冥路之緣捨金重財使德寺雙蓮堂熙圓禪師塗是佛修是寺兼造一頭袈裟不數月而功訖則其侈麗宏傑居然爲諸叢林第一指也經云檀越逢僧難僧亦受施難今此施主與化士並篤於奉佛之誠相與合心齊慮結此蓮花淨界上一大因緣則其功德崇且大可謂須彌齊矣又經云諸佛唯以一大事因緣出現於世此寺之重葺此佛之塗金莫非一大事默契之理亦自有不期然而然者歟然而成而毀者天道之自然而毀而成者亦人事之攸爲則成毀之際可見天人之交須矣今茲施主化士之功可謂有成而安知異日其成者又有毀毀者又有成耶若使後人踵此施主化士之心隨其毀繼成之則其成無毀可與天壤期矣於是乎爲之記

道光二十八年戊申五月端陽日落成

化主雙蓮熙圓都監昌學良工處銓

○ 파평(坡平)의 미타사(彌陀寺)에 극락전이란 전각이 있어 그 안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두 존자의 금상이 안치되어 있고 또 극락전 뒤에 한 칸 남짓한 법당이 있어 그 안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세 존자의 금상과 산성나한 7위(位)의 분상(粉像)이 안치되어 있는데 이는 무슨 일인가? 전내(殿內)와 당중(堂中)에는 각각의 불 보살이 있어야 마땅한데 모두가 하나의 아미타불과 하나의 관음보살을 중복하여 봉안하고 있으니 이는 또 무슨 일인가?

다시 주인공에게 묻되 “경(經)에 이르기를 ‘오직 마음이 정토(淨土)요, 본래의 성(性)이 미타(彌陀)이며 염정십법계(染淨十法界)가 모두 한 마음속에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이름도 같고 호도 같은 아미타불은 이와 같은 표법으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도리로 그러하였습니까”하니 주인공이 대답하기를 “이 한 칸의 당안에서 존자의 금상이 있는 것은 이 동구 아래 10리쯤에 있었던 금강사(金剛寺)의 주불이고 고려조 윤상공(尹相公)의 본사였습니다. 세상은 말세가 되고 성자는 멀어져 불(佛)을 숭상한 사람은 적고 불을 헐뜯는 사람은 많아지니 자연히 산은 빛을 잃고 절은 치폐하였으며 불의 향기는 끊기고 중들은 흩어져 남아 있던 불상은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이 절로 옮겨온 것이니 필연의 형세입니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여 나는 “그렇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아! 전각이 퇴락하고 불상이 퇴색하면 그 절에서 그 부처님을 모시면서 여러 승려들이 중수하고 개금하는 것은 고금에 한 두번이 아니고 또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금상(今上) 즉위의 14년(1848) 무신 맹하<孟夏, 음력 4월을 말함>에 서울에 사는 시주 갑자생 이씨가 잊지 못할 은혜를 갚고 겸하여 명로<冥路, 저승길>의 인연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하여 귀중한 전재(錢財)를 회사하여 덕사(德寺)의 쌍운당(雙運堂) 회원선사(熙圓禪師)로 하여금 이 절을 중수하고 부처에 개금하여 아울러 한 벌의 가사를 짓게 하여 몇달이 안되어 일을 끝마쳤는데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은 여러 사원 중에서 첫째라 하겠다. 경(經)에 이르기를 “시주는 중을 만나기 어렵고 중은 시주를 받기가 어렵다” 하였다. 이번에 이 시주와 화사는 아울러 부처를 받드는 정성이 돈독하여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여 이 연화정계상(蓮花淨界上)에서 하나의 큰 인연을 맺었으니, 그 공덕이 높고 큰 것은 가히 수미산과 나란하다 하겠다. 또 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큰 일의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였다” 하였다. 사원의 중수와 불상의 도금은 하나의 대사도 목계된 이치 아님이 없으니 이는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루었다가 헤어지는 것은 천도(天道)의 자연이고 헤어졌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인도(人道)의 행위이니, 이루고 헤어지고 할 즈음에 하늘과 사람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번에 시주와 화사의 공은 과연 이룸이 있다 할 것이나, 후일 그 이루었던 것이 다시 헤어지고 헤어졌던 것이 다시 이루어질지는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만일 후인으로 하여금 이번의 시주와 화사의 마음을 이어받아 헤어지는 대로 이루게 한다면, 이루기만 하고 헤어짐이 없음은 가히 천지를 두고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기(記)를 쓰는 바이다. 도광(道光) 28년 무신(1848) 단양일<端陽日, 단오일>에 낙성하다.

화주(化主) 쌍운(雙運) 회원(熙圓), 도감(都監) 창학(昌學), 양공(良工) 처전(處銓)

[奉先本末寺誌 彌陀寺 彌陀寺重修記]

○ 夫序目者見千秋之意也坡平山東有寺兀然曰彌陀寺也東達松嶺西控湖水景概東海之名山西關之靈區也佛像靈驗之道場則一切衆生至誠發願仰蒙慈悲之恩力故或無子而生子或緣貧而致富矣萬世不遷之沙門也法堂年久歲深東傾西頽佛像不免風雨則聞見者孰不慨然況祈禱者誰莫嗟乎玄故主僧慈悲之心勸善鳩財重建則三寶破刹依如前樣故四事施主信心功德四海之輪回也是故化主僧功力誰莫可讚哉

建陽二年丁酉五月日

化主比丘智燁施主李鳳集

○ 무릇 서목(序目)이란 것은 천추(千秋)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파평산의 동쪽에 높다란 절이 있으니 미타사이다. 동으로는 송령의 경치와 이어져 있고 서로 호수의 경치를 안고 있어 동해의 명산이요, 서관의 영구(靈區)이다. 불상은 영험이 있는 도량이니 만치 일체의 중생이 지성으로 발원하여 우리러 자비의 은력(恩力)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두고, 혹자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니 만세에 변함이 없는 것이 사문(沙門)이다. 그런데 법당이 해가 오래되어 동으로 기울고 서로 허물어지며, 불상은 풍우를 가리지 못하니 듣고 보는 이 뉘라서 개연해 하지 않겠으며 더구나 기도하는 자는 뉘라서 슬퍼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주승(主僧)이 자비심으로 권선하여 재물을 거두어 중건하니 삼보(三寶)의 퇴락했던 사찰이 예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사(四事) 시주의 신심과 공덕은 사해(四海)의 윤회와 같다하는 것이다. 화주승의 공력을 뉘라서 찬양하지 않겠는가.

건양 2년(1897) 정유 5월 일

화주(化主) 비구(比丘) 지엽(智燁), 시주(施主) 이봉집(李鳳集)

[太古寺法 彌陀寺]

○ 在坡州郡坡平面坡平山(一名彌羅山)大本山奉先寺末寺

○ 파주군 파평면 파평산(일명 미라산)에 있다. 대본산 봉선사의 말사이다.

[奉先本末寺誌 彌陀寺]⁵⁾

○ 高麗毅宗時金剛居士尹彦頤與貫乘大師創建朝鮮憲宗十四年戊申雙運熙圓化主重修高宗建陽二年丁酉五月智燁化主二回重修

○ 고려 의종 때 금강거사 윤언이(尹彦頤)와 관승대사(貫乘大師)가 창건하였다. 조선 현종 14년(1848) 무신 쌍운(雙運) 희원(熙圓) 화주(化主)가 중수하였다. 고종 건양 2년(1897) 정유 5월 지엽(智燁) 화주(化主)가 2회 중수하였다.

■ 유적·유물

○ 미타사 / 파주시 파평면 놀노리 23-2 / 사찰 / 미타사는 원래 금강사의 부속암자였으나 금강사가 폐사되자 금강사의 아미타존상을 이곳에 옮겨 미타사라고 칭함. 현 대웅전 앞·뒤권에 초석, 와편 등이 산재.

○ 금강사지 석조불좌상(石造佛坐像) / 조선 / 불상 / 현재 나한전에 봉안. 두부는 결실된 것을 보수하고 회칠함.

○ 금강사지 나한상(羅漢像) / 조선 / 불상 / 2점, 나한전에 봉안. 빈두노존자상(賓頭盧尊者像)은 무릎 위에 각지를 끼고 있으며 정우존자상(定優尊者像)은 지물을 들고 있음.

5) 『韓國寺刹全書』에서 전제하였다.

8. 보광사(普光寺)

[梵宇攷 楊州 寺刹 普光寺]

- 在高嶺山
- 고령산에 있다.

■ 유적·유물

- 보광사 /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 사찰 /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폐사되었다가 1622년 설미(雪眉)와 덕인(德仁)이 중창. 1740년 소령원(昭寧園)의 원찰이 됨. 영산회상후불탱(1898), 석가범천천룡군탱(1915), 팔상탱(1915), 치성광여래삼존군탱(1898), 삼장탱(1898) 등 소장.
- 보광사 대웅보전(大雄寶殿) / 유형 83 / 1740(영조 16) / 건조물 / 전면 3칸, 측면 3칸인 팔작지붕의 건물. 외벽은 목판벽이며 벽화가 그려져 주목됨.
- 보광사 만세루(萬歲樓) / 1740 이후 / 건조물 / 측면 5칸, 전면 7칸. 1층은 창고이고 2층은 난간이 둘러진 루.
- 보광사 쌍세전(雙世殿) / 1740 이후 / 건조물 / 전면 3칸, 측면 2칸. 뒷벽에 산수화 등의 벽화가 있음.
- 보광사 목조도금오존불상(木造鍍金五尊佛像) / 조선후기 / 불상 / 대웅전에 봉안. 석가 여래를 중심으로 보살입상이 갖추진 오존상. 모두 통견의 두터운 불의를 입고 있음.
- 보광사 숭정칠년명동종(崇禎七年銘銅鐘) / 유형 158 / 1634(인조 12) / 종 / 높이 97cm. 용뉴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맞붙어 있고, 합장한 보살입상이 범자와 함께 유곽 사이에 나타나 조선시대 범종의 특징을 보임.
- 보광사 청동금고(靑銅金鼓) / 조선말 / 금고 / 지름 85.5cm, 조선말기로 추정. 금고의 한가운데에는 태극문 시문. 테두리에는 범자가 양각됨.

9. 보현암(普賢庵)

[傳燈本末寺誌 普賢庵]⁶⁾

- 在炭縣面錦山里階礎尙存
- 탄현면 금산리에 있다. 계단과 초석이 상존해 있다.

6) 『韓國寺刹全書』에서 전제하였다.

10. 봉암사(鳳巖寺)⁷⁾

[輿地圖書 積城 寺刹 鳳巖寺]

- 在紺嶽山北麓中
- 감악산 북쪽 기슭 중에 있다.

11. 상양사(上陽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 佛宇 上陽寺]

- 在白雲山
- 백운산에 있다.

[輿地圖書 坡州 寺刹 上陽寺]

- 只有舊址
- 단지 옛터만 있다.

[伽藍考 坡州 上陽寺]

- 在白雲山州北十七里
- 백운산에 있다. 주 북쪽 17리이다.

[梵宇攷 坡州 寺刹 上陽寺]

- 在白雲山今廢
- 백운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12. 성재암(聖在庵)

[梵宇攷 交河 寺刹 聖在庵]

- 在交河尾洞上
- 교하 미동 근처에 있다.

7) 李政 編著, 『韓國佛教寺刹事典』, 불교시대사, 1996.에서는 鳳巖寺를 ‘紺岳寺’와 같은 사찰로 분류하였지만 여기에서는 별도로 분류한다.

13. 신암사(神岩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積城 佛宇 神岩寺]

- 俱在紺岳山
- 모두 감악산에 있다.

[輿地圖書 積城 寺刹 神巖寺]

- 在紺岳山南今廢
- 감악산 남쪽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14. 영신암(靈神庵)

[東國名山記 靈神庵]

- 在坡州郡黃施村先生墳墓所在地其下有金剛窟懶翁所居也
- 파주군 시촌 황선생 분묘의 근처에 있다. 그 아래에 금강굴이 있는데 나옹이 살던 곳이다.

15. 영은사(靈隱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 佛宇 靈隱寺]

- 在臨津江下龍發山
- 임진강 아래 용발산에 있다.

[伽藍考 坡州 靈隱寺]

- 在龍發山州北十里
- 용발산에 있는데, 주의 북쪽 10리 지점이다.

[梵宇攷 坡州 寺刹 靈隱寺]

- 在龍發山今廢
- 용발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16. 영천암(靈泉庵)

[梵字攷 交河 寺刹 靈泉菴]

- 在長命山今廢
- 장명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17. 용상사(龍床寺)⁸⁾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 佛宇 龍床寺]

- 在月籠山俗傳高麗王嘗避亂駐蹕于此遂名之
- 월농산에 있다. 항간에 전하기로는 고려 왕이 일찍이 피난하여 여기에 주필(駐蹕)하였으므로 이것을 이름으로 삼았다.

[輿地圖書 坡州 寺刹 龍床寺]

- 只有舊址
- 단지 옛터만 있다.

[梵字攷 坡州 寺刹 龍床寺]

- 在月籠山今廢. 이하 新增東國輿地勝覽과 동일
- 월농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 유적·유물

- 용상사 / 파주시 월릉읍 덕은리 산 137-1 / 사지 / 덕은(德隱) 화주가 1445년 중건. 현재의 용상사는 사지의 동쪽 아래로 해방전에 중건함.
- 용상사 정통십년명석불좌상(正統十年銘石佛坐像) / 1445(세종 27) / 불상 / 높이 61 cm. 바닥에 '正統十年乙丑五月□□德隱'이라 새겨져 있어 덕은(德隱)에 의해 용상사가 중창될 때 같이 조성된 것으로 보임. 향마촉지인의 수인. 가슴에 만자(卍字)가 양각됨.

8) 『畿內寺院誌』에는 덕은리사지로 조사되었다.

18. 운계사(雲溪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積城 佛宇 雲溪寺]

- 俱在紺岳山
- 모두 감악산에 있다.

[輿地圖書 積城 寺刹 雲溪寺]

- 在雪馬嶺北今廢
- 설마령 북쪽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 유적·유물

- 운계사지 /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 21-2 / 사지 / 현재는 범륜사(梵輪寺)가 건립. 19세기 말의 신증탱이 있음. 요사채 옆에 조선후기 와편 산재.
- 운계사지 탑재(塔材) / 조선 / 탑 / 탑신석 1개, 옥개석 3개, 지대석 1개가 남아 있음.

19. 운천암(雲泉庵)

[輿地圖書 交河 寺刹 雲泉菴]

- 在長命山今毀
- 장명산에 있다. 지금은 훼손되었다.

20. 호명사(虎鳴寺)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 佛宇 虎鳴寺]

- 在蟠龍山
- 반룡산에 있다.

[輿地圖書 坡州 寺刹 虎鳴寺]

- 只有舊址
- 단지 옛터만 있다.

[伽藍考 坡州 虎鳴寺]

○ 在蟠龍山州東七里

○ 반룡산에 있는데, 주 동쪽 7리 지점이다.

[梵宇攷 坡州 寺刹 虎鳴寺]

○ 在蟠龍山今廢

○ 반룡산에 있다. 지금은 폐사되었다.

II. 발굴 및 지표 조사에 의한 유적

21. 용암사(龍岩寺)

■ 유적·유물

- 용암사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1 / 사찰 / 창건연대 미상. 1976년 현재의 건물을 창건함.
- 용미리 석불입상(龍尾里石佛立像)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 보물 93 / 고려 / 불상 / 높이 1740cm. 천연 암벽을 동체로 삼아 그 위에 목, 갓 등을 따로 만들어 얹어놓은 2구의 거대한 불상.

22. 율곡리사지(栗谷里寺址)

■ 유적·유물

- 율곡리사지 / 파주시 파평면 율곡4리 / 사지 / 정남향으로 현재 3단의 석축과 본전의 기단으로 보이는 시설, 기타 건물지 등이 있음. 추정 금당지에는 760cm의 기단(2단)과 초석 3개가 남아 있음.

23. 파주읍 마애사면석불(坡州邑磨崖四面石佛)

■ 유적·유물

- 파주읍 마애사면석불 /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31-1 일월봉 / 유형 156 / 고려 / 바위의 네면을 다듬어 각면에 한구씩의 불상을 선각한 사방불. 동면불 높이 112cm, 서면불 94cm, 남면불 98cm, 북면불 126cm, 각상은 두광과 원형 신광을 갖추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 함.